



Wee

위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교사용)



미리보는 위(Wee) 소식

목차

→ 전문가 칼럼

- ☑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심사 총평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금명자**
- ☑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심사 소회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김승혜**

→ 현장의 소리

- ☑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기관 부문 대상 수상 후기
'누구든지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성장하는 우리'
대구해울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김민정**
- ☑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기관 부문 대상 수상 후기
'너에게 향하는 위(Wee)로, 날개를 달아줄게'
용산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강혜영**

위(Wee), 알려드립니다

알림

→ 다음 호 소식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wee.go.kr

대상 위(Wee)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위(Wee) 프로젝트 참여 학생 및 학부모

제출방법 kcm0314@kedi.re.kr로 제출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찬미



전문가 칼럼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심사 총평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금명자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루고자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에서 폭력, 학대, 무기력, 자해, 자살과 같은 어둡고 무거운 말들이 나오는 작금이다. IMF 10년 후인 2008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에서는 30개의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마련하여 심리평가, 치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Wee) 센터, 학교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위(Wee) 스쿨로 구성된 위(Wee)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위(Wee) 프로젝트가 16년을 지켜오면서 전국에 8,863개의 클래스, 239개의 센터, 그리고 17개의 스쿨로 그물망 체계를 갖추어 학교 폭력과 학교 부적응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은 어느덧 12회를 맞이하였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주제는 ‘희망’이다. 제출된 사례들을 읽으며 처음에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그다음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담임교사, 학교, 위(Wee) 클래스 상담 전문가들, 지역의 연계 기관들이 아이 하나 살리려고 몸부림치듯 매달리는, 목구멍을 넘어가는 침도 느껴지는 긴장감 있는 다양한 개입들이 있었다. 비자발적 내담자로 대표되는 청소년 내담자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상담 치료이론과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인 개입을 고민해 내고, 몸 품, 맘 품을 팔아 아이들의 지지 기둥이 되었고, 샘솟는 따뜻한 에너지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화답하였다. “나도 선생님과 같은 상담 선생님이 되어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요.” 눈물, 콧물 없이는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감동이 이어졌다. 약속했던 시간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심사 시간이 이어졌다. 아니 심사라기보다는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제출된 어떤 사례도 휴먼드라마가 아닌 것이 없었기에,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또다른 고민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희망(hope)은 이루고 싶은 목표(goal)가 분명하게 있고, 이를 꼭 이루려는 에너지인 열망(agency)과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경로인 방법(pathway)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긍정적 동기의 상태라고 정의된다(Snyder, 1994). 사례의 상담자들은 필요한 것과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학생들과 함께 정하고(goal), 지금까지 쌓아 온 전문적 지식과 경험들에 의해 나온 방법들로 평가하고 상담하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부모와 형제, 친구들, 다양한 전문 센터들과 협력하면서(pathway), 진심과 전심으로 학생들을 끌고, 밀고, 견디었다(agency). 위(Wee) 클래스 사례에서는 담임교사의 책임감과 학교 운영진의 융통성 있는 지원,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들의 전문적 개입들이 어우러져 변화를 창출하였다. 교육청형, 가정형 등 위(Wee) 센터의 사례들에서는 철저한 심리평가와 자원 탐색과 지원의 토대 위에 학생과

통권 68호 2023년 겨울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로와 도전, 지지와 교정이 입 맞추듯 상담 개입이 이루어졌고, 이미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연계하면서 종합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안학교, 병원 등에 설치된 위(Wee) 스쿨에서는 목적 지향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내담자의 지, 정, 의를 균형감 있게 발달시키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모처에 모여 소개되었을 때 담당자들이 이 심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타당하게, 신뢰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신 학계, 학교 운영진, 일선 학교 전문상담교사, 위(Wee) 센터 직원 등이 포함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출된 사례들이 심사의 차가운 평가 외에 복잡한 감정이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간과 힘이 들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씩만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 여러 학생들과 담당자들을 뽑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명시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심사위원들은 작금의 교육 현장의 어려움, 우리 사회의 가난한 단면들, 일선 위(Wee) 현장의 고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전문가들이 저렇게 지속하면 결국 소위 말하는 소진(burn out)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하였다.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개인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를 보이며 열심히 일한 감정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부작용 결과이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사례들이 보이는 고통은 학교 부적응으로 단순히 말할 수 없는, 오래도록 깊게 학생들을 괴롭혀 온 문제들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났고, 상담자들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공감하면서, 상담, 심리평가 외에 연계, 자문, 교육, 서류 작업하는 행정 등 일인 다역을 쉬지 않고 소화하고 있었다.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수퍼비전이다(허난설, 2016).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자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개입 방향을 명료하게 정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 그 어려운 일을 사명감으로 의미 부여하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현장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해 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들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 수퍼비전을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을 절실히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허난설 (2016). 학교상담자 발달 단계별 수퍼비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 6, 417-436.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The Free Press.



전문가 칼럼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심사 소회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김승혜**

지난 3여 년간 우리 일상을 바꿔 놓았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 지금,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여러 언론 보도 및 통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 길었던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등으로 사회·정서적 발달이 더뎠거나 마스크와 스마트폰에 갇혀 '제대로 클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 맺기, 사이버폭력, 교육격차, 심리·정서적, 정신·병리적 문제, 자해, 자살 등 위기 상황을 보이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난 추세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주, 가까이에서 교사, 전문상담교사들은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곁에서 어려움, 슬픔, 기쁨, 행복함, 고통 등을 함께 나누는 위(Wee)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위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인 Wee는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 있는 위(Wee) 공간에서 잠재력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번째인 위(Wee) 희망대상 심사에서 접한 사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양하고 심각해진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서 위(Wee) 프로젝트의 가치와 방향을 담은 큰 노력과 사랑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변화와 어려움에도 위(Wee) 프로젝트는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과 함께,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한 학생이 잠시 쉴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기도 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기도 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다시금 걷게 하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지표가 필요한 학생에게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입과 귀가 되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온전히 감정과 마음을 느껴주는 심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위(Wee) 희망대상은 단순히 누가 상담을 잘했는지 또는 어려운 상담을 했는지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가 만나고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위(Wee) 희망대상을 심사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회복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가지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고 이미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다시 웃게 하고, 꿈꿀 수 있게 하여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게 해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현장의 교사와 관계자들의 노력과 애쓰심이 더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와 치유에 대한 성과도 있고,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한 아이를 다시 웃게 하려고 애쓰신 수많은 노고가 담긴 이야기들이 모여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로 집약된

통권 68호 2023년 겨울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희망적인 변화와 여정을 위해서 위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제도 및 정책 강화, 예산 지원, 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반드시 수반되고 강화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앞으로 위(Wee) 프로젝트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부모 사이 못지않게 교사와 부모 사이에도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뢰를 잘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은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중략)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불허이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안 좋은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지 그 예방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위 프로젝트는 우리 학령기 청소년의 어려움을 돕고,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 위(Wee) 프로젝트의 가치와 진정성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꿈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교사, 관계자분들이 이 가치를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위 프로젝트와 함께 해오신 모든 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현장의 소리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기관 부문 대상 수상 후기

누구든지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성장하는 우리



대구해울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김민정

“진심으로 대하면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상담교사로 10년 넘게 근무하며 서서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념이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면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대하면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따뜻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소신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처음 본교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사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2018년 개교한 본교는 도심 속 공립형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나 ADHD, 우울, 자폐스펙트럼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자라는 교실(위탁)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예방하여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위(Wee) 스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우려와 달리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담실 공간을 구축하고 이끌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교육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다품대안교육**을 실천하겠다는 학교장의 경영관이 본바탕이 되어 있었기에 함께하는 상담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본교에는 상담 관련 전문 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2명, 전문상담사 1명, 정신건강간호사 1명으로 총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선생님은 마음이 자라는 교실(위탁)을 전담하고 나머지 인력은 본교 위(Wee) 클래스에 상주하며 상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여러 명의 선생님이 함께 상담실을 이끌어가고 있어 더욱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상담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상담실에서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너에게 가는 길)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함께 자라는 우리) 손잡고 함께 위기를 극복(손잡고 희망 DIVE)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아래와 같이 위(Wee)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가는 길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 신입생이나 전입생 선발 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학년 초 학생들의 진단명 및 약물 복용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신건강간호사의 지도로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위탁)은 매월 학생 선발 면접을 하여 반 편성과 교육활동에 적응하고 위기 상황이 있을 시 보호자 및 원적교 교사와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통권 68호 2023년 겨울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여 신속한 병원 연계 및 2차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1학년 전교생의 약 40% 이상이 관심군 학생으로 선별되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내실 있는 **상담**과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또래 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 보드게임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자아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 초청을 통한 정기적 연수를 통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돕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연수의 장도 마련하여 학부모님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에서는 '자기 이해 및 성장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힘쓰고 함께 외부 체험 활동을 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



사회심리극



보드게임 활동



생명 존중 캠페인

세 번째, 손잡고 희망 DIVE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학생이 있을 때는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학생통합맞춤형 위기관리회의를 진행하고 지역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학교 전담 경찰관, 정신건강 전문의, 지역 위(Wee) 센터, 복지사 등 외부 위원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실시하고 학업 중단 예방 회의를 통해 함께 지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님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업중단숙려제

여러 선생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에 병원 진료와 약물 치료를 거부하며 학교에 부적응했던 학생의 학부모님을 설득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던 학생 상태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어머니를 설득하여 학생의 병원 치료와 가족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 복지관 연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위(Wee) 클래스 운영으로 학생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편안한 상담실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친구들과 함께 상담실을 방문하고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며 상담실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학생을 위해 모든 교사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 위(Wee) 클래스가 많은데 본교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본교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협조해 주시고 최전방에서 학생들과 밀착하여 이끌어가시는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례를 나누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담실 선생님들이 늘 함께 계시고 전적으로 믿어 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은 앞으로 위(Wee) 클래스를 더 잘 이끌어가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격려의 상으로 저희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에게 주시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관 사례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면서 저희 학교 위(Wee) 클래스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업무들을 정리하며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3차 현장 심사를 받으며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 시스템 마련과 약물치료나 진단에 대한 낙인보다 학생들이 변화의 주도성을 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힘을 주면 좋겠다는 따뜻한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긴 호흡으로 길게 보고 학생들이 서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며 조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사회에 나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담자로서 인간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저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류 분석의 '자기 긍정-타인 긍정'의 태도('I'm OK, You're OK.')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나도 이만하면 괜찮고 당신도 그만하면 괜찮다."라는 상호 존중의 편견 없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진심으로 대하면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신념이 더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2회 위(Wee) 프로젝트 기관 부문 대상 수상은 제게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큰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온정을 다해 학생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상담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권 68호 2023년 겨울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현장의 소리

제12회 위(Wee) 희망대상 상담업무담당자 부문 대상 수상 후기

너에게 향하는 위(Wee)로, 날개를 달아줄게



용산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강혜영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이 말처럼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제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대학교 4학년쯤, 뉴스에서 한 아이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아이가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가슴이 저리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로, 위(Wee)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은 제가 꿈꾸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생님들은 너무 바빠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거나 마음을 만져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1:1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 비판과 판단 없이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위(Wee) 클래스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교원개발능력평가 주관식 문항에서 ‘선생님은 제가 듣고 싶은 위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라는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위로가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기뻐했습니다.

“너를 향한 위(Wee)로”

2021학년도부터 만난 OO이는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복직하면서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큰 키에 수줍어하면서 인사를 하는 소녀 같은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반면 OO이의 마음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동안 만난 학생 중 자살 위기와 심각한 자해 행동 등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학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OO이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결석 일수가 너무 많아 유예위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생의 출석을 위해 담임교사-교육복지사-상담교사가 한 팀을 이뤄 움직였습니다. 저는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아이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OO이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가정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OO이의 존재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본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로 자신을 갇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OO이도 제가 건넨 호의에 반응하듯 적극적으로

통권 68호 2023년 겨울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었고 저는 묵묵히 학생의 감정을 함께 버텨주며 공감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상담활동 중 학생과 함께 만들었던 동화책이 생각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를 했는데, OO이는 ‘고장 난 인형이 새 인형이 되길 바랐지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갔습니다. OO이의 동화책 이야기에 제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심이 통했을까요? 저는 그저 OO이를 사랑해 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을 뿐인데, 상담을 통해 자신이 수용 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자, OO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학교를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는 유예 위기였지만 3학년이 된 지금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생님, 저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육복지사 등 수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OO이는 조금씩 학교에 적응해 가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Wee)로 날개를 달아 줄게”

조금씩 OO이의 변화가 일어나며 OO이가 조금씩 행복을 알아갈 때 <제12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이라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지원해 보자는 제 말에 OO이는 흔쾌히 본인의 이야기를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OO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글을 작성해야 하는 일이라 ‘혹시 OO이가 글을 쓰다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옛 기억이 OO이를 더 힘들게 하진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OO이는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을 떠올릴 때도 “이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라며 해맑게 웃기도 했습니다. 11월 초, 3차 현장실사를 오신다는 소식에 OO이와 제가 많이 긴장했던 기억도 납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며 격려를 받은 그 시간이 OO이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상 수상’ 소식에 OO이와 저는 날듯이 뛰며 참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던 OO이에게 하나의 성취와 성공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OO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Wee) 희망대상 수상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0년 차 전문상담교사로서 사실 많이 지치고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건넨 진실된 위로와 사랑이 거부와 배반으로 돌아올 때도 많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의 더딘 변화에 때로는 다른 선생님이나 보호자가 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데 돌아오는 건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뿐이니 제 마음속에도 어느덧 서운함과 속상함이 쌓여만 가고, 마음속 깊이부터 소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12회 위(Wee) 희망대상의 수상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상 수상 소식이 지금까지 저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진심에 대해 ‘그래,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전했던 그 진심과 노력이 눈에 띄는 결과로 인정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자!”

OO이와 저는 지금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OO이는 학교에 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웃고 좀 더 행복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된 조금의 변화가 OO이의 삶에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의 바람으로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인 스스로를 더 사랑해 주고,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3차 현장실사 때, 한 심사위원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화려하게’ 걸으려 드려나는 결과에 매진하기보다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주면서 ‘수수하게’ 학생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는 분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위(Wee) 클래스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다소 느리더라도 학생들이 변화하는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친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 경험으로 우리 학교는 물론 제 주변에서도 위(Wee)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상담과 치유의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상담업무담당자의 노고를 인정해 주고 자긍심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